일부 학교체육관 '영리수단' 전락

학교시설서 영리행위 할수 없는 데도 버젓이 성행
교육당국 관리 체계 미비… "학교측과 대책 마련"

제주도내 학교 체육관 시설들이 개인 돈벌이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도내 각급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는 체육관을 포함한 교실 등 각급 학교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이 조례에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급 학교시설을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스포츠 동호회에서 개인 레슨 수강비를 받는가 하면 민간사업자가 농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도내 학교 체육관에서 영리활동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도내 한 배드민턴동호회 회원 이모(34)씨는 "제주시내 한 학교체육관을 대여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 내에서 회비 외에 개인레슨 희망자를 대상으로 강습비를 별도로 받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학교 체육관이 공공시설이고, 개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레슨비를 받고 있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성토했다.

제주시내 모 농구교실에 여섯 살난 아들을 보내고 있다는 김모(39)씨는 "아이가 워낙 활동적이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농구교실을 보내게 됐다"며 "그런데 학교 체육관에서 하는 거라 별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영리활동이 불법이라니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도내 한 탁구동호회 회원 A(42)씨는 "학교 체육관에서 개인들이 영리 행위를 하다 보니 특정 종목과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상당수 학교 체육관들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점도 초래되고 있다"며 "학교 체육관이 공공시설인 만큼 영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학교시설에서의 영리활동, 독점 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체계와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양명환 교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만으로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교 체육관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사이에 정보 공유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는 등 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 계약은 각급 학교에서 직접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어 실태 파악이 힘들다"며 "학교 측과 문제점 등을 공유·보완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초여름 햇살 맞으며…'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인 17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의 한 농경지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햇살을 맞으며 취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교육청 정기인사 축소에 교육노조 반발

연2회→1회 변경 입법예고
노조 "하위직 기본권 박탈"

교육청이 행정 혁신을 단행하겠다면서 매년 2회 단행하던 정기인사를 1회로 축소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교육노조가 지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이하 '제주교육노조')은 제주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대해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 정기인사를 없애고 7월 한차례만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과감한 행정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교육노조는 교육청의 정기인사 축소 변경 계획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교육 중심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교육청과 노조 간 단체협약 제3조에 의거해 협의를 요구했다.

류지훈 위원장은 "1월 정기인사가 지방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정기인사를 연 1회로 축소할 수는 없다"며 "정기인사 횟수를 연 2회로 유지해 '전보 내신(전근 신청)' 제출기회를 보장하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정방폭포 인근서 어선 좌초

17일 오전 2시28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정방폭포 인근 해안에서 유망어선 A호(50t·승선원 9명)가 좌초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경은 이날 오전 6시13분쯤 민간구조선 등과 함께 A호를 무사히 해상으로 이초했다.

서귀포해경은 서귀포항 입항 중 좌초됐다는 A호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빵집 문 열다 노인 숨지게 한 30대 '기소의견'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속보=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가 출입문에서 넘어져 숨진 사고(**본보 5월 20일자 4면 보도**)와 관련, 당시 할머니와 함께 빵집의 문을 열던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3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내의 한 빵집 입구에서 출입문을 열다가 함께 문을 열던 B씨(76·여)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일주일 뒤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동시에 문을 여는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숨졌기 때문에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19~20일 '아라~회천' 번영로 일부구간 통제

새벽시간… 봉개교 가설공사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 새벽 시간대에 제주시 아라-회천에 이르는 번영로 일부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기간동안 애조로와 번영로 연결을 위한 봉개교 가설공사를 실시해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작업시간 동안 중산간도로 분기점인 봉개교차로에서 제피로스 입구까지는 전면 통제되며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우회도로는 '봉개교차로-서·동회천-와흘교차로-제피로스 입구'다.

이 기간동안 동부경찰과 자치경찰단, 모범운전자회 등이 주요 지점에 배치돼 교통 안내를 진행한다.

당초 봉개교 가설공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행될 예정이였으나, 도민안전 및 도로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야간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작업장비도 크레인 300t 1대를 추가 배치하고, 빔 운반 트레일러도 육지부 유경험자를 투입해 번영로 연결을 위한 상부빔 거치공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사랑으로

제주시,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제주시는 7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학 재학 등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및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2020년 일본대학 입학설명회 21일 오후 3시 제주고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제주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0학년도 일본대학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일본 대학 입학설명회에는 일본 호세이 대학교와 아이치대학교, 칸세이가쿠인 대학교가 참여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안내 및 제주지역 학생의 입학 조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시간은 각 대학별로 20분간 전반적인 학교 소개의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각 대학별로 별도 배정된 강의실에서 구체적인 입학안내 및 1:1 상담이 진행된다.

일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일본 대학들이 일본 유학시험(EJU) 점수를 요구하는데, 제주지역에서는 교육감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점수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편 2019학년도에는 3명이 추천돼 추천인원 전원이 일본대학에 진학했다.

표성준기자